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출시 환율 올라도 환수금 없고 환율 하락시 전액 보상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환율이 오를 때는 환수금이 없고, 환율이 내릴 때는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안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안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 및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시 입은 손실은 전액 보상받고 환율상승시 얻은 이익은 그대로 취하기 때문에, 키코(KIKO) 트라우마나 환수금 부담으로 환헤지를 망설였던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물무역협회 등에서 일정수준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2012년 환변동보험 이용금액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였으나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엔화 환변동보험 이용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번 '안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도입으로 환수금 및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엔저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일반형 1종 옵션형 2종 등 3가지로 운영
환변동보험은 일반형과 환수금이 면제되는 옵션형으로 구분된다. 환율하락시 보상비용 범위와 환율상승시 이익금 납부여부에 따라 원하는 보험의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한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료는 약 0.02~1.5%까지 달라진다.

'일반형'은 환율 하락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0.02% 내외(6개월 기준)로, 최대 5년(수입거래는 1년)까지 가능하다.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중국위엔화가 가능하다.

'옵션형'은 보험가입시 환율(청약일 시장평균 환율)보다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점은 같지만 환율 하락시 '부분보장 옵션형'은 최대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번에 출시된 '안전보장 옵션형'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이 다르다. '부분보장 옵션형' 보험료는 약 1.1%, '안전보장 옵션형' 보험료는 약 1.5%다. ↻

구분	일반형	부분보장 옵션형	안전보장 옵션형
구조			
손익구조	환율하락시 :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시 : 환이익 환수	환율하락시 : 최대 통화당 최대 80원 까지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시 : 환수금 없음	환율하락시 : 한차손 전액보상 환율상승시 : 환수금 없음
보험료	약 0.02% 내외 (6개월 기준)	약 1.1% 내외*	약 1.5% 내외*
기간	최대 5년 (수입거래는 1년)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보험료지원	유관기관, 지자체 등 환변동보험 지원有 (업종제한 없음)	aT 및 수산물무역협회, 무역협회, 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90%까지 보험료 지원 (중소·중견 농수산물, 엔저피해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보험료지원방안 추가 논의 중 (지원대상 업종 확대예정)	
가능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중국 위엔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 환율선시장 상황 및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료 수준 변동 가능